



# 중은벗들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 3

2022  
March

설명절을 맞아 좋은벗들이 정성을 담은 선물을 들고 좋은이웃을 찾아 보였습니다. 본문에 다 담지 못했지만 이웃을 위한 그 마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신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날의 기록 일부를 모아보았습니다)



연해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그 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등으로  
흩어졌던 고려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 좋은벗들



We'll be Goodfriends with All Beings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벗이 되겠습니다

[www.goodfriends.or.kr](http://www.goodfriends.or.kr)

## 글 실는 순서

### 특별 활동1 - 고려인지원

04

아이의 밝은 모습·강종윤 / 함박마을에서 동포애를 느끼다·강종윤

### 특별 활동2 - 설명절방문

07

좋은 기억이 힘이 됩니다·유현주 / 말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최옥분 /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김경화 / 특별한 선물포장·조민경 /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최주영 /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여정화 /  
하나를 드리고 열을 받았네요·정정숙 /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최복규 /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최은지 / 오랜만에 들썩들썩 명절분위기로·김미정 /  
얘기를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최현희 / 통일이 되어 고향땅을 방문하길·권인숙 /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서·박춘숙 / 사투리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에요·김진태 /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박나현 / 다음엔 여유있게 찾아뵙겠습니다·김선수 /  
방문대상은 많지만·이상욱

### 특별 활동3 - 역사기행

26

### 좋은이웃되기

#### 가정 방문

29

새로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이정원 / 생일 축하합니다·이정원 /  
엄마가 바쁘지만·김미정 / 코로나로 힘들지만·이정원 /

## 2022. 3 통권 133호

펴낸날 2022년 2월 28일 **만든이** 김미숙, 김윤정, 손재희, 이승용, 이영미

펴낸곳 0665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1길 42(서초동 1591-1) 정토사회문화회관 9층 좋은벗들

Tel 02-587-8996 Fax 02-581-4077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사)좋은벗들은 다름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스터 백신 잘 맞으세요·김태윤 / 의료비 지원해드릴 수 있어·이정원 /  
아픈데도 챙겨주시는 마음·신미순

### 산모/영유아 지원

35

태울아, 첫돌 축하해·신미순 / 잠에서 깬 수연이와 우진이·이정원 /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이명은 / 건강하게 자라렴·최옥분 /  
효영아, 늦었지만 돌 축하해·한선화 / 돌지원은 처음·신경미 /  
백일 축하드려요·한선화

### 특별 활동4 - 김장 담기

46

올해도 맛있는 김장·정순금 / 하나가 된 듯한 따뜻한 시간·이정원 /  
김장 전 분위기 업업·김선수 / 글로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유현주 /  
더없이 좋은 날·김경화 / 김장 걱정 끝·최은지 / 마음이 전해져서·최옥분 /  
새로운 김치의 탄생·김미현 / 김치 노하우 배우기는 덤·신경미 /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김장·최성선 / 일정이 갑자기 변했지만·이진서 /  
빠른 손 덕분에 일찍 끝내고·주선희 /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김정림 /  
김장하는 날은 잔칫날·정광명 /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서태원 /  
재단과 협력하여 진행·여정화

### 통일 정진

64

정초 통일기도 | 장희정 / 사천왕사지 통일기도 새해맞이 천배 정진 | 김천호

### 후원해 주신 분들

66

## 특별활동 1

# 고려인지원

인천 연수구에 함박마을이라는 곳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집값이 싼 빌라와 원룸들이 있어 형편이 어려운 고려인들 약 6,500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 삽니다. 이는 면적대비 전국 최대 인원입니다. 일부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가게도 열며 생업을 이어가지만 많은 수의 고려인들은 언어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 및 자녀 교육, 육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등지로 흩어졌던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입니다.

올해부터 (사)좋은벗들에서 진행하는 ‘좋은 이웃 되기’ 사업에서는 고려인, 미얀마 인까지도 포함하여 이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 좋은벗들에서 이 가정들을 중심으로 ‘좋은 이웃 되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지원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고려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아직 동포 지위를 못 받고 재외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등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이라 지원이 시급합니다.

# 아이의 밝은 모습

강종윤 | 인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9일
- 방문대상 : 13가정 (고려인 11가정 포함)
- 봉사자 : 최인호님과 14명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하였는데,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어 이웃집 같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고려인 지원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어 뿌듯합니다.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 먹먹하고 안타깝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고려인끼리 다니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다 품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이웃 닥으로 방문하여 아이들과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방문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좋은이웃분들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는 모습은 좀 달랐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 보다 더 많이 받고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 함박마을에서 동포애를 느끼다

강종윤 | 인천 좋은벗들

- 행사일/장소 : 2021년 11월 20일 / 원고려인문화원
- 참여 : 12명
- 봉사자 : 최인호원장, 7명(김미현, 강종윤, 남상원, 안재호, 이정순, 정신국, 김효심)

오전10시부터 준비된 재료로 다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인분들이 김치 만드는 것 한 번 보고도 바로 따라 하시는 것을 보며 동포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치처럼 김장 후 뒤풀이를 하는데 코로나로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 마무리했습니다.



참여한 고려인분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니 같은 민족, 동포임을 느낄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고려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만든 김장김치는 참석한 분들이 가져가고 남은 김치는 최인호원장님께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 특별활동 2

# 설명절 방문

연말연시는 가까운 분들 외에도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한 분에게 전화라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2022년 코로나 변종 확산으로 인하여 직접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 다소 아쉽지만,  
마음만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 좋은 기억이 힘이 됩니다

유현주 | 안양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2일
- 방문대상 : 박○○님댁
- 봉사자 : 박영희, 유현주

희망통장 만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시는 박○○님이 오늘은 일터인 식당에서 보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이 곧 결혼할 예정이라 혼수 등 얘기를 들으며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 스님과 나들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환하게 웃으며 행복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내미는 손이 부끄럽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사이다 세 캔과 커피 두 통을 언제 사와서는 내뱉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자 말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집니다.

- 방문일 : 2022년 1월 30일
- 방문대상 : 한○○님댁
- 봉사자 : 김은연, 박연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한○○님이 일요일까지 쉬려고 해서 늦은 오후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한○○님은 지난시절 힘들었던

일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장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말밖에 못하는 아들이 사춘기까지 겹쳤을 때 과감히 하던 일 내려놓고 상담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같이 힙합 노래를 배울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님의 지혜로운 모습에서 희망적인 미래가 보였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2월 5일
- 방문대상 : 2가정(문○○님댁, 김○○영님댁)
- 봉사자 : 유현주

방문이 두 번 취소되고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른 불안감을 말하는 문○○님. 문 앞에 준비한 선물을 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7시 반부터 1시까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영님. 집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전 직장에서 또래 직원들에 비해 본인이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적응을 못하고 나와 이직했지만, 역시 또 다른 문제로 불편하다는 속마음을 내어놓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에 대한 부러움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지 막상 당사자들은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헤어지면서 꼭 품에 안아봅니다. 작은 체구의 이 아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 말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최옥분 | 부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30일
- 방문대상 : 4가정

지난번에 조선족 남편이 귀화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좋은벗들 밖에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이것저것 알아본 후, 설명절 방문 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건설업계 일하고 있지만, 향후 축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중국보다 훨씬 좋다고 만족해합니다.

24시간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분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겨 조만간 결혼을 계획 중이고, 이전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좋은 이웃분들은 입원 등 가정사로 전화통화만 하였습니다. 좋은이웃들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하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좋은 하루였습니다.



#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화 | 포항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2일~24일
- 방문대상 : 11가정
- 봉사자 : 서주연, 이정미2, 박잠순, 신선재, 이기호, 박금희, 진옥희, 김은주, 김경화

화초가 많고 햇볕이 환하게 들어오는 밝은 집에서 건강하게 직장 다니는 분, 공익실현을 위한 일이라면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생활하는 분,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다 어깨를 다쳤는데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열심히 생활하는 분, 예전에 운동선수였는데 요즘도 매일 두시간씩 걷고 만보를 실천하는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분,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장애를 얻고 홀로 사는 분 등등 방문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편안하고 친근감있게 일상생활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이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사는 게 천국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불만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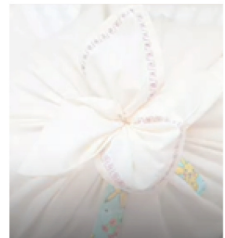
## 특별한 선물포장

조민경 | 화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2일~24일
- 방문대상 : 19가정
- 봉사자 : 38명
- 기부물품 : 환경 연계한 광목(보자기로 활용), 마스크

21일 오후 4시에 봉사자 8명이 모여 설명절선물 물품(떡국떡, 한과, 김, 채반, 마스크)를 광목보자기로 포장하였습니다. 22일 9가정 방문을 시작으로 23일 7가정, 24일 7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설명절방문을 위하여 정성을 들여 준비하였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 부분이지만 함께하니 전체가 된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물 포장이 너무 예뻐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좋은벗들 명함, 방문 시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등)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최주영 | 대구 수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3일
- 방문대상 : 9가정
- 봉사자 : 김경혜, 최은희, 김민숙, 이은여, 최주영

좋은이웃분들께서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법륜스님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도 주시고,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

습니다. 좋은이웃분들 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담당하는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여정화 | 서광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1일 ~ 28일
- 방문대상 : 50가정
- 봉사자 : 이정민(향덕법사님), 이경선, 김영숙, 박영애, 임명자, 이미자, 양선희, 여정화, 임현수, 최종열, 김선미, 이미덕 외 2인

광주, 목포, 구례 지역을 나누고 봉사자 2인 1조로 좋은이웃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를 걸어 댁에 계시는 경우에는 직접 선물을 전달하며 안부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재중인 경우에는 선물에 간단히 인사말 메모를 붙이고 현관문 앞에 두고 선물사진을 전송하여 좋은벗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정방문으로 좋은이웃의 생활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차년도 지원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좋은벗들입니다”하며 좋은이웃분들과 소통하려니 어색했지만, 오히려 따스하게 돌려내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합니다.



# 하나를 드리고 열을 받았네요

정정숙 | 중음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18일~22일
- 방문대상 : 41가정
- 봉사자 : 백재선, 김정희, 김선희, 조정희, 유은희, 정정숙

좋은이웃분들 가정방문을 드렸는데,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싶어하시며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인상이 밝으셔서 좋았습니다.

부재중일 경우, 문 앞에 걸어 두고 사진을 보냈더니 다들 잘 받았다고 연락주시네요. 좋은벗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통일축전, 김장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드리고 열을 받아온 것 같이 마음이 부듯하고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최복규 | 청주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4일 ~ 27일
- 방문대상 : 12가정

받아주는 분이 반갑고 고맙게 받아 주셔서 좋았습니다. 방문 시 안 계셔서 문 앞에 놓고 온 택배에서 잘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 고맙웠습니다. 고생해서 이 곳에 와서 살지만, 팍팍한 삶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이웃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최은지 | 부산 해운대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5일~27일
- 방문대상 : 29가정 / 23가정
- 봉사자 : 김영미, 정경희, 최은지, 김정숙, 주선희

코로나로 한분 한분 직접 뵈지 못하고 새해 덕담을 전화로 대신했습니다.

고촌지역 좋은이웃분들은 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낮에 일을 하시고, 오○란 님덕을 마을 사랑방으로 자주 방문하여 외로움을 달래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선물을 오○란님덕에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방문드린 가정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수고가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이 배우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는 좋은벗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들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오랜만에 들썩들썩 명절분위기로

김미정 | 서울 노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8일
- 방문대상 : 6가정 (해명이네, 효진이네, 성우민우네, 고유네, 은우네, 별이네)
- 봉사자 : 정순금, 김용안, 허은경, 윤영주, 장성심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좋은이웃 방문단을 꾸려서 함께 가니 들썩들썩 명절 분위기가 났습니다.

첫번째 방문한 해명이네는 오빠, 엄마와 함께 명절을 보낸다니 다행입니다. 효진이네는 엄마가 일을 하는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인사 나누고 왔습니다. 민우네는 떠날 때 쌍둥이들은 또 언제 오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우네는 은우가 영어 학원을 무료로 다니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고유네는 엄마가 아직도 귀가하지 못해 아이와 아빠만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별이네는 누나가 국악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즐거운 소식과 함께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귀가 고급저졌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분들과 함께 한 이웃들이 있기에 남북이 좀더 화합이 잘 되리라 믿어봅니다.



# 얘기를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최현희 | 서울 송파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1일 ~ 29일
- 방문대상 : 11가정
- 봉사자 : 신은경, 변효지, 박애자, 이인숙, 백지혜, 신명은, 이기조, 황점숙, 박경란, 이명화, 강진이, 최현희

미리 연락드린 후 방문하여 덕담도 나누고 설날 선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전화로 간단히 안부를 전하고 집 앞에 놓고 오거나 택배를 보내고는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마스크를 쓰고 그 동안의 안부도 전하고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님은 치매를 앓아 작년 봄부터 케어센터에 다니시고 밤에 오셔서 잠만 주무신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님은 그동안 장 문제가 있어 몇 번 수술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전보다 매우 수척한 모습이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하시는 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귀하고 의미있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 통일이 되어 고향땅을 방문하길

권인숙 | 수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9일
- 방문대상 : 35가정
- 봉사자 : 24명

반갑게 맞아주는 좋은이웃들을 통해 따듯함을 받았습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절 선물을 전달만 하지 않고 이야기도 나누고 환대해 주시니 가족같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뿌듯하고 감동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져 그 분들도 명절에 고향 땅을 방문할 날이 어서 오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좋은벗들 시범 사업으로 계획중인 '좋은이웃 역사기행(수원화성 예정, 3월말~4월초)'에 대하여 이번 설 명절 방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주셨습니다.



#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서

박춘숙 | 서울 서대문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7일
- 방문대상 : 6가정
- 봉사자 : 박춘숙, 류계영, 김미현, 황선미 (차량봉사)

오늘 찾아 뵙기 전에 미리 전화로 안부인사와 함께 방문예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정숙님의 오랜 단골가게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예쁜 보자기도 준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황선미님의 차로 이집 저집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좋은이웃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장김치를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며 반기만 하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북한식 떡과 사탕을 준비해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는 좋은벗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해주셔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사투리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에요

김진태 | 부산 사하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9일 ~ 30일
- 방문대상 : 26가정
- 봉사자 : 최은영, 하찬순, 김형석, 박소정, 박세윤, 김진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좋은이웃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선물주어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 전달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이웃의 사투리를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박나현 |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8일~29일
- 방문대상 : 3가정
- 봉사자 : 최영화, 김평숙

최ㅇㅇ님은 평일에는 커피사 직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해 선물을 두고 통화만 했습니다.

안ㅇㅇ님은 방문했을 때 친구분이 오셔서 사진촬영 부탁을 드리지 못하고 잠시 얼굴만 뵈고 왔습니다. 늘 활동적이고, 아파트에서 대표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잠시지만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ㅇ이네 넷째가 태어난 이후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본 사이에 넷째가 태어나고 벌써 7개월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그런지 조잘조잘 근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 그런지 지ㅇ이가 특히 많이 어른스러워진 걸 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다음엔 여유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김선수 | 부산 금정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6일
- 방문대상 : 23가정

좋은이웃 댁에 방문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려는데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셨는지 말씀을 계속하셔서 얼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 짠 마음도 있었습니다. 퇴근 전인 분은 경비실에 맡겨 두고 사진 찍어 문자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바쁘게 준비해서 하루에 구매하고 배달하려니, 급한 마음에 배달에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여유있게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이웃분들의 환한 얼굴을 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방문대상은 많지만

이상옥 | 창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3일, 29일~31일
- 방문대상 : 74가정
- 방문자 : 20명

설명절 방문해야 할 대상은 74가정으로 많았지만,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좋은이웃분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봉사자들은 참여하며 보람 있어 했고, 좋은벗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역사기행

(사)좋은벗들에서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한 역사기행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한양도성 역사기행을 오프라인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후 강화도, 강원도 철원 DMZ, 광주 5.18까지 이어지는 3번의 온라인 역사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역사기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계층에서 바라보느냐, 무엇을 위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역사기행을 2022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분





들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도 기획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양도성 역사기행에 참여했던 양희주님 소감

독립문 → 선바위 → 인왕산 → 바람의 언덕 → 자하문까지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님의 안내로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자하문까지 내려와 단체사진을 찍고 해산하고 집으로 가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첫 역사기행을 마치며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역사해설을 들으며 걸으면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기행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더 마음에 남는 기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행을 추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 철원/DMZ 온라인 역사기행에 참여했던 김미숙님 소감

강원도 철원과 DMZ를 돌아보며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역사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열린 사고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역사기행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영역 확장을 경험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좋은이웃되기

가정방문, 산모/영유아 지원



정착초기에는 첫 살림살이를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은행 이용,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드리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자 출산 준비물과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일과 돌에도 축하하며 좋은이웃의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0월 12일
- 방문대상 : 김○○님댁
- 방문자 : 김병선, 이정원



광주 전00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00님을 처음 뵙고 왔습니다. 전00님은 쌍둥이를 키우며 좋은벗들 지원을 잘 받았기에 시흥으로 이사를 간 친구 김00님도 소개해주셨습니다. 김00님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어 충분히 잘 적응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과일을 깎아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먹고 오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년 1월이면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과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듭니다. 담당 맡아주신 김병선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방문일 : 2021년 10월 14일
- 방문대상 : 송0님댁
- 방문자 : 이명은, 이정원



광주 전00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두번째 분인 송0님을 뵈었습니다. 연락을 담당할 이명은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무언가를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편하게 하는 연습해보려 합니다. 웃어주는 예쁜 아기를 보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첫 만남, 가볍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방문일 : 2021년 11월 23일
- 방문대상 : 전○○님댁
- 방문자 : 유애경(월광 법사님), 이정원

안산 초지동 전○○님 잘 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오신 후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는 복지사 선생님이 한번씩 오시고, 초등학교 자녀 둘과 함께 지내신다 합니다. 오래 앉아계시는게 불편하신 듯 하여 간단히 인사 나누고 일어섰습니다. 인연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방문일 : 2021년 12월 11일
- 방문대상 : 이경○님댁
- 방문자 : 정희숙, 이정원

9개월, 5살, 5학년 아들 셋을 키우고 계시는 안산의 이경○님을 뵈고 왔습니다. 처음이라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좋은이웃 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 편안한 분위기여서 괜히 걱정했구나 했습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대해주고 옆집 이웃 만나듯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볍게 방문해가면 될 듯 합니다.



# 엄마가 바쁘지만

김미정 | 서울 노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1월 28일
- 방문대상 : 5가정
- 방문자 : 김용안, 정순금

추운 날씨인 데도 김장에 이어 정기방문까지 하였습니다. 좋은이웃, 특히 엄마들이 모두 생활전선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보니 아이들이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늘 한결같이 활동하시는 두분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2월 14일
- 방문대상 : 최영0님댁



안산다문화센터 정리 당시, 달마얼굴의 보석십자수가 많이 있기에 보석십자수 좋아하는 최영0님께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져다 드린 1개는 벌써 완성하여 한 쪽에 예쁘게 걸어두셨네요. 다른 것도 완성되면 주변에 선물하겠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유자차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겠다고 고맙다고 웃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잘 흘러가서 다른 봉사자분들과 반갑게 만나 밥 한끼라도 같이 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혼자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늘 반겨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방문일 : 2021년 12월 23일
- 방문대상 : 전00님댁



전00님 댁에 11살, 13살 남매가 있어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소하게 과자를 들고 찾아보였습니다. 유애경(월광 법사님)과 다녀간 이후 첫 방문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들도 모두 집에 있어서 반갑게 만나고 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편히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부스터 백신 잘 맞으세요

김태윤 |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2월 23일
- 방문대상 : 2가정
- 방문자 : 이경은, 김태윤



모두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만나기 힘들었기에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백신 3차를 두 분 다 1월에 맞을 예정이라고 하니 부디 1, 2차때처럼 부작용없이 아프지 않길 바래 봅니다. 봉사물품을 전달해드리는 일이지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신 좋은이웃과 좋은벗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방문일 : 2022년 1월 18일

매달 방문해주고 올 때마다 과일 등 물품을 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반겨주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백신 3차를 맞고 크게 아픈 곳없이 잘 지나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설 명절에 중국에 계시는 가족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인을 몇몇 만나기로 했더니 적적하지 않은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신 백\*옥님을 만나 안부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과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봉사물품 전달만 하는거라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함께 감사함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의료비 지원해드릴 수 있어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11일
- 방문대상 : 박에00님댁

유애경(월광 법사님)이 의료비 지원을 요청해 오시며 인연이 된 박에00님을 뵈고 왔습니다. 박에00님은 홀로 초등학교3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몸이 좋지 않아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녀분이 학교에서 사고로 치아가 한 개 파손되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이야기도 편안하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스스로 복이 많다고 믿는 예쁜 분이고, 자녀분도 밝고 선해서 주변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의료비 지원을 계기로 좋은벗들과 인연을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병원진료 예약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큰 탈없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방학이라 같이 간 딸아이가 사진을 찍어주고, 다음에 오빠 보러 놀러오자고도 합니다. 인연에 감사합니다.



# 아픈데도 챙겨주시는 마음

신미순 |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1월 20일
- 방문대상 : 김00님댁

김00님은 한달 전에 무릎 수술후 몸과 마음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일을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한 마음이라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도 부기가 남아있고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김00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하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격려해 드리니 긍정적인 김00님이 잘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아픈 다리로 먹을 것을 챙겨 주겠다고 하시는 걸 간신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안아 드렸는데 이번에는 김00님이 먼저 저에게 안겼습니다. 슬픈 영화처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돌려지며 짝한 마음으로 보듬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김00님이 하루 빨리 완쾌되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도움주신 좋은벗들과 관계된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태울아, 첫돌을 축하해

신미순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0월 10일
- 방문대상 : 박○○님댁
- 방문자 : 이태자, 신미순

이사한 박○○님댁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넓어서 좋았습니다. 첫돌방문과 분유 지원방문도 같이하는 거라 돌잔치 손님을 피해서 다녀 온다고 서둘러서 오전 11시에 함께 방문했는데, 그 새 손님이 오셨네요. 태울이는 손님이 많아서 어리둥절한 채 약간 울먹이면서 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달 지나 보게 된 태울이는 성큼 커 있었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알아보는 지, 태울아 하고 부르니 울지도 않네요. 박○○님은 손님 접대에 바쁘셔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축하금만 전달하고 나오는데, 미안하다며 떡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냥 오려다가 돌떡은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받아 나왔습니다.

태울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첫 돌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바쁜 중에 떡과 선물을 챙겨주어 감사했습니다.

- 방문일 : 2021년 11월 9일

분유지원 마지막입니다. 박○○님 댁에 가서 김장 이야기도 하고 오순도순 이

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저녁식사 중이었습니다. 태울이는 그새 커서 밥상 앞에서 혼자 손가락을 들고, 흘리지만 밥알 몇 톨씩 입에 넣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박ㅇㅇ님께는 좋은이웃 김장날 김장김치를 배달해 드리니 엄청 좋아하며 감사하다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식사 중이라서 잠깐 있다가 문을 나셨습니다. 태울이가 분유를 먹고 건강하게 잘 커가는 모습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 잠에서 깬 수연이와 우진이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0월 14일
- 방문대상 : 백ㅇㅇ님댁
- 방문자 : 이정원

분유를 전달하러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수연이와 우진이가 자고 있어서 백



00님과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서 내년에는 무엇든 일을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참 힘든 세월 잘 견디고 행복을 찾은 백00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응원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수연이와 우진이가 멍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뚫어져라 보던 귀여운 모습이 계속 남아있네요. 인연에 감사합니다.

- 방문일 : 2021년 11월 23일

신규지원 1차 분유 전달 드리고, 밥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들 포함 가족들이 모두 감기에 걸린 상태라 폐를 끼칠까 걱정된다고 하셔서 간단히 인사 나눈 후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기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러웠습니다. 다 나온 후 뵙기로 했습니다.

#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명은 | 시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0월 27일 / 11월 24일
- 방문대상 : 송0님댁
- 방문자 : 이명은, 이정원

오늘 처음 분유를 가지고 갔는데 아쉽게도 서로 오해가 있어 얼굴만 뵙고 왔습니다. 좋은벗들 초창기 약속이 어긋났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약속을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다행히 근처의 미0님댁에 방문하여 여러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 방문일 : 2021년 12월 23일
- 방문자 : 김명신, 이명은

아이들은 참 빨리 크네요. 송0님댁 민준이도 건강히 자라 있었습니다. 박0님댁 민준이와 개월수도 비슷해서 나중에 두 아이가 함께 공놀이 하며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기를 기도합니다. 송0님의 말씀에 외로움이 많이 물어남을 느꼈습니다. 더 자주 놀러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2일, 23일 두 민준이를 보며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 건강하게 자라렴

최옥분 | 부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1월 9일
- 방문대상 : 황○○님댁
- 방문자 : 김인화, 최옥분



김인화님과 만나 신생아 옷을 구입해 황○○님댁을 방문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2.8kg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0살 된 큰아이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기와 둘이 살고 있는 황○○님. 중국에서 큰아이를 데려오기까지 과정과 북한에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2년 동안 검정고시로 초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모두 취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분유지원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난처해 부담을 갖고 어렵게 질문을 했는데, 편하게 답해줘서 너무 고맙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황○○님이 추석방문 때보다 살도 빠지고 더 건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고 순하고 너무 예뻐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방문일 : 2021년 12월 2일

생후 40여일 된 준영이를 만나러 가는 날. 얼마나 자랐을 지 기대하며, 분유랑 동화책을 챙겨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황ㅇㅇ님은 부기도 많이 빠져 보기 좋았습니다. 준영이는 싹싹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이야기, 북한에서 생활했던 이야기와 같은 고향 사람들과 만나 결혼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으니 좋은이웃들의 애환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인지 지난번보다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1월 6일

분유와 기부받은 아기옷을 가지고 황ㅇㅇ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달만에 본 아기가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아 궁금했는데, 아기가 먹는대로 토해서 검사 결과 장 협착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킬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분유를 잘 먹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는 큰아이도 얼굴이 밝아 보여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갖다 준 동화책을 잘 읽는지, 재미있는지 물어보니 재미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동화책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빌어봅니다.



## 호영아, 늦었지만 돌 축하해

한선화 | 남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1월 11일
- 방문대상 : 유ㅇㅇ님댁(호영이)
- 방문자 : 임순화, 한선화

통일축전 소식을 알리며 둘째 낳은 것을 알게 되어 11월 6일 돌이라고 메모해 놓았는데, 병원에 입원하느라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아기 엄마와 아빠는 국내 정착한지 6년차로 첫째가 아기였을 때 들어와 지금 일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학원 가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으니 옷을 얘기해 점퍼와 내의를 몇개 골라 사진으로 보내주고 아기엄마가 원하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말이 없는 편인 아기 엄마가 매우 감사하고 좋아해서 전해주는 우리들도 행복했습니다.

제 날짜(11/6)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하여 더욱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히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 돌지원은 처음

신경미 | 부산 동래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1월 22일
- 방문대상 : 김ㅇㅇ님댁(호영이)
- 방문자 : 이두심, 신경미

돌지원은 처음이라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 얼굴만 보고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놀이용품으로 아이들이 너무 잘 놀고 있다고 기쁘고 고맙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넷째 아들이라고 하네요.



## 백일 축하드려요

한선화 | 남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1년 12월 10일
- 방문대상 : 김○○님댁(첫째)
- 방문자 : 임순화, 한선화

12월 9일이 백일인데 갑자기 울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40여명으로 많이 발생되어 밖에서 하려던 백일잔치를 취소하고 집에서 백일상 대여 받아 사진찍는 것으로 대체 했다고 합니다. 저와 임순화님도 몸살기가 있어 문 앞에서 아기엄마와 잠깐 만나 전달하였는데 인증샷 찍는 걸 놓쳤습니다. 귀여운 아기는 사진으로 대신 받아 보았습니다.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일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다시 놀러 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귀여운 아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법륜스님 온라인 행복학교

오리엔테이션 + 마음편 4강  
참가비 1만원



법륜스님 행복학교

검색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는 2016년 11월 국민행복운동으로 시작하여 2020년 6월 부터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내 집에서 쉽고 가볍게 행복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호응을 일으키며 잔잔한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복학교는 주 1회 50분 수업으로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 온라인 행복학교는 행복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https://hihappyschool.com>



## 특별활동 4

# 김장 담기

김장을 담그는 날은 동네가 부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소금에 절인 배추를 건지고

한 쪽에서는 분주하게 배추에 넣을 속과 양념을 준비하고.

김장을 다 담그고 나면 겨울나기 준비가 되었다며 뿌듯했던 기억,

이젠 좋은 이웃과 함께 합니다.



# 올해도 맛있는 김장

정순금 | 서울 노원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5일
- 참여 : 6가정(성ㅇ네, 고ㅇ네, 은ㅇ네, 해ㅇ네, 현ㅇ네, 기ㅇ네)
- 봉사자 : 김용안, 정순금

올해는 배추 양도 많아서 넉넉했고 양념도 딱 맞게 잘 끝났습니다.

김용안님은 일찍 오셔서 준비부터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김장이 빨리 잘 끝났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일도 준비해와서 아이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진심으로 좋은이웃들을 챙기는 정순금님. 절임배추를 직접주문하고 채반까지 다 챙겨 오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김치속을 지원해 주시는 좋은벗들의 봉사자분들 덕분에 아주 맛있는 김장을 했습니다.





# 하나가 된 듯한 따뜻한 시간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9일
- 참여 : 8명(김영0, 윤0, 이혜0, 송효0, 전해0, 채경0, 김순0, 최영0)  
8가정 배달(김향0, 백미0, 송0, 박혜0, 박향0, 장옥0, 조은0, 주세0)
- 봉사자 : 김명임, 김병선, 김이자, 김명신, 신미순, 이태자, 윤선희, 백승례, 이명은,  
이정원

봉사자들은 오전 10시에 모여 채반에 배달된 절인 배추 물빼기를 하고, 각자 준비해 온 재료들을 손질하며 즐겁게 양념준비를 했습니다. 시흥 좋은벗들 봉사자들의 대모인 백승례님도 바쁜 중에 고구마를 삶아 다녀가시고, 봉사자들이 밤과 굴 등을 준비해 주셔서 점심도 든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예정이던 좋은이웃분들 중 3분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어 8분이 오셨습니다. 2시가 좀 넘어서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2019년 김장행사 당시 다소 경쟁적인 분위기였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가





족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고 여유있게 양념 바르기를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 전했습니다. 양념을 꼭 많이 바른다고 김치가 맛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니 봉사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양념 바르는 것이 서툴러 손이 느린 분의 김장봉지에, 옆에 있던 손 빠른 좋은 이웃분이 배추를 넣어주기도 하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김장을 잘 마친 후에는 간단히 준비한 과일과 과자를 내어 와 다시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갑자기 노래 한 곡씩 해보자는 분위기가 되어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던 분들도 한 분 두 분씩 용기 내서 마음을 내다보니 6분이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다들 잘하셔서 깜짝 놀랐고, 아는 노래는 봉사자들도 함께 부르며 좋은이웃과 좋은벗들이 하나 된 듯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누기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행사 마무리 후에는 참석 못한 가정에 배달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시간이 가족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담당하는 분만 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있으면 싶습니다.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같이 노래하고 마음도 내주신 덕분에 봉사자들이 힘이 납니다. 지원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봉사자와 좋은벗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장 전 분위기 업업

김선수 | 부산 금정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14일
- 참여 : 4명(김○○, 지○○, 최○○, 이○○)
- 봉사자 : 김건화, 김보경(+딸), 김상미(+남편), 전은경, 이주경, 최윤숙, 김선수

봉사자는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김보경님과 따님이 일찍 와서 절인 물을 빼놓아서 김장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추물을 손으로 더 짜주고, 버무릴 쟁반 등 사전준비를 준비하고, 봉사자들끼리 먼저 여는 모임 속에서 전체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좋은이웃 네 분이 오셔서 다같이 소개와 인사를 진행합니다. 좋은이웃 한 분이 침밀밀(홍콩영화, 대만가수 등려군)노래를 불러주셔서 분위기 UP UP(업 업)!

배달은 봉사자 두 분이 담당해서 일부는 집 앞까지 일부는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김치를 받은 좋은이웃 중에 한 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하셨습니다. 좋은이웃, 봉사자 모두 바쁘실텐데 함께 해주셔서 재미있었고 감사했습니다.



# 글로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유현주 | 군포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13일~14일
- 참여 : 9명 / 12가정 배달
- 봉사자 : 구광숙 김복선 김은연 김인희 권미애 문은미 박연주 박재운 박혜경 백남순  
서정연 유현주 이창림 정선숙 정인경 최수연 허순

김장행사 할 수 있게 선뜻 집을 제공해 주신 김은연님의 덕분으로 가볍게 김장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김장재료 다듬기를 하고, 하루는 양념을 버무려 속을 채우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절임배추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자는 처음 계획과 달리, 더 좋고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김은연님과 박연주님 두 분께서 일일이 발품 팔고 다녀 주셨습니다. 머리에 캡까지 준비하고 오신 윤옥희님을 보면서 놓친 부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비대면 이후 처음 다함께 한 자리라 그날 모인 우리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글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김장준비와 장소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잔칫집에 온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더없이 좋은 날

김경화 | 포항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13일~14일
- 참여 : 13가정
- 봉사자 : 진옥희, 김경화, 이행숙, 이동조, 백은정, 박금희, 이정미

따뜻한 가을 햇살이 더없이 좋은 날! 좋은이웃들과 김장을 하면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봉사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신 좋은이웃도 계셨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꺼이 자택을 내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신 이행숙님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차량지원까지 해주신 이동조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마련한 행사지만, 며칠동안 수고해주신 소중한 봉사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 김장 걱정 끝

최은지 | 부산 해운대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1일
- 참여 : 13명(양○주, 최○은, 홍○택, 류○숙, 박○경, 이○혜, 김○하, 김○애, 양○희, 이○희, 김○희, 이○애, 이○화) / 2가정 배달
- 봉사자 : 한유나, 유미영, 이미화, 최순이, 최은지



아침 8시30분에 오전 봉사자들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절임배추 60포기의 물기를 빼고, 기본 양념에 추가로 무우, 갓, 쪽파, 젓갈,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업그레이

드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후 쟁반과 그릇에 미리 배추와 양념을 소분하고 참여할 좋은이웃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어찌나 손이 빠르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고, 북한김치 이야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이야기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 좋고, 김장걱정 덜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강 멤버로 구성되어 손발척척!! 너무 재미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마음이 전해져서

최옥분 | 부천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0일
- 봉사자 : 한정수, 최인화, 윤경원, 조용진, 김미래, 정준채, 허남희, 신상우, 이정희, 김지우, 최옥분

사전취합할 때 좋은이웃 7분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우려 및 집안일 등의 사정으로 직전에 모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봉사자끼리 준비한 재료로 김장을 하였습니다. 김장이 일찍 끝나 두 팀으로 나눠 배달까지 하고 나니 5시쯤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없는 가구엔 현관 앞에 두고 인증샷 찍어 문자 전송하고, 직접 전달하니 너무 고마워하시니 뿌듯하고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김장김치를 받은 좋은이웃의 문자 메세지입니다.

“선생님~ 김치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온종일 밥 못먹고 있었는데 덕분에 밥 한 그릇 푹딱 먹었어요. 항상 부모님같이 계절마다 챙겨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존경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 새로운 김치의 탄생

김미현 | 서울 서대문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0일
- 참여 : 3명 / 6가정 배달
- 봉사자 : 안경자, 한예진, 곽노진, 주정숙, 박춘숙, 김미현, 류계영, 노태술

봉사자 7분과 좋은이웃 3분이 한예진님댁에서 모였습니다. 코로나 19이후 처음 만나 서먹하였지만 인사를 나누고, 통일축전 영상을 함께 보고나서 김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절임배추100kg, 양념 17kg과 추가로 기부받은 양념으로 양념소를 늘려서 좋은이웃 6가정에 드릴 배추김치를 하였습니다. 작년엔 다른 곳에서 받은 김치에서 물이 생겨서 싱거웠다는 얘기를 하였고, 양념도 조금 부족한 듯해서 절임배추를 겉절이 식으로 무와 함께 버무려서 또다른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봉사자님 덕분에 새로운 김치가 탄생하였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북한식 김치 이야기와 생활해온 경험담을 들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를 받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한 시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 김치 노하우 배우기는 덤

신경미 | 부산 동래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1일
- 참여 : 7명 / 2가정 배달
- 봉사자 : 신경미, 이두심, 김종숙, 이기림, 박경연, 신명숙, 김미영, 김귀숙, 이주현

양산시 덕계 소재 야외카페 장소를 제공받아 김장행사를 오전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좋은이웃 중 한분이 처음에 양념안하고 절인 배추만 들고 가겠다고 하였다가, 맛있게 버무려진 김치를 보고 더 달라고 하여 부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치공장의 8년 경력을 가진 봉사자의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좋은이웃이 행복해하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해진 시간이었습니다.



#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김장

최성선 | 구미 좋은벗들

- 행사일/행사장소 : 2021년 11월 21일 / 구미 아도모레원
- 참여 : 24명 / 10가정 배달
- 봉사자 : 김복경님외 16명

날씨도 좋은 날, 좋은이웃과 김장행사를 하였습니다. 좋은이웃들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법륜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배추를 뽑아 절이고 버무리면서 힘은 들었지만 나눌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법륜스님께서 좋은이웃들과 배추를 버무리면서 정겨운 말씀을 하셔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 분은 유튜브에 나오는 스님이라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의 정성스런 마음과 기부로 김장나눔을 풍성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정이 갑자기 변했지만

이진서 | 서울 서초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18일
- 참여 : 4가정 배달
- 봉사자 : 2명

18일 목요일에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수요일부터 급하게 일하게 되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요일에 만들어서(월요일에 배추 절이기 시작) 저녁 때 배달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가 끝나 이제부터 여유있게 배달하고 애기도 나누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빠른 손 덕분에 일찍 끝내고

주선희 | 부산 수영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7일
- 참여 : 6명(오○란. 이○란. 박○경. 김○영. 이○옥. 한○옥)
- 봉사자 : 권혜수, 김영미, 주선희, 차수경, 최문숙, 허영순

차량봉사자 2명이 좋은이웃을 태워 해운대 정토회 사무실에 10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서로 통성명하고 첫마음 나누기 한 후 김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의 지혜로 일거리 분배하여 좋은이웃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손들이 어찌나 빠른 지, 시작한지 30분도 안되어 김장을 끝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와 간단한 간식으로 그동안 못나눈 인사와 현재 북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받고 코로나로 드리지 못했던 어린이 옷과 어른 겨울옷을 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좋은이웃 분들은 매번 잊지 않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주어서 고맙고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하였다며, 올 겨울 김장 걱정없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김정림 | 거제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4일, 26일, 27일
- 참여 : 11가정
- 봉사자 : 손경숙 외 13명

봉사자와 좋은이웃이 함께 속이 짝찬 배추를 손질하여 절이고, 직접 김치 버무리 각자 김치통에 넣어 갔습니다. 코로나로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행복 했으면 합니다.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장하는 날은 잔칫날

정광명 | 동대구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1월 28일
- 참여 : 15가정
- 봉사자 : 권순명, 박규리, 장정자

좋은이웃 덕에서 함께 모여 김장하기를 하였습니다. 김장하는 날이 잔칫날이라며 북한식 만두 등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덤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젊은 새댁들이 많아서인지 김장을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끝내어 좋았습니다. 여럿이 모여 함께하니 흐뭇함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서태원 | 광명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2월 5일
- 참여 : 8명 / 6가정 배달
- 봉사자 : 장효숙, 김현숙, 서태원, 서방자, 문도순, 조하연, 선우태일, 정대영, 박재석, 박인순, 오현, 정대영, 박재석, 송기영, 이희영, 유애경(월광법사님)

김장담기행사를 위하여 봉사자들은 전날 절임배추를 받아 물기빼고, 양념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좋은이웃이 도착하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시팀부터 시작, 3시팀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 및 마무리되었습니다. 4시부터 가정마다 배달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의 봉사로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단과 협력하여 진행

여정화 | 서광주 좋은벗들

- 행사일 : 2021년 12월 4일
- 참여 : 30가정
- 봉사자 : 민춘희, 이경선, 양선희, 박영주

남북하나재단에서 목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좋은이웃들을 위해 매년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좋은벗들은 재단과 협력하여 김장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이웃들이 김장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양념을 직접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절임배추로 준비하여 김장만들기 당일에는 좋은이웃분들과 봉사자분들이 함께 모여 버무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김장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는 좋은이웃들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좋은벗들에서는 김치통을 준비하여 3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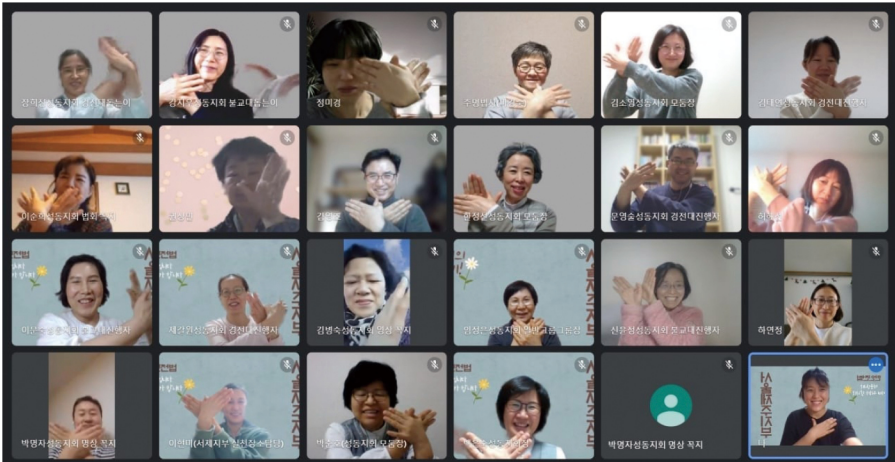
통일정진 지금도 진행중인 우리들의 통일 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정초 통일기도

장희정 | 서울 성동 좋은벗들

- 일시 / 장소 : 2022년 2월 5일 / 온라인
- 참석자 : 강지우, 권상민, 김병숙, 김소영, 김영조, 김유진, 김태연, 김하경, 문영술, 박명자, 박승희, 박춘호, 백은숙, 신윤정, 이문숙, 이순희, 이현미, 임정은, 정미경, 제갈원, 장희정, 하연정, 한정선, 허해선, 마경숙(주명 법사)

정초부터 통일기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발원문을 읽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통일정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춥고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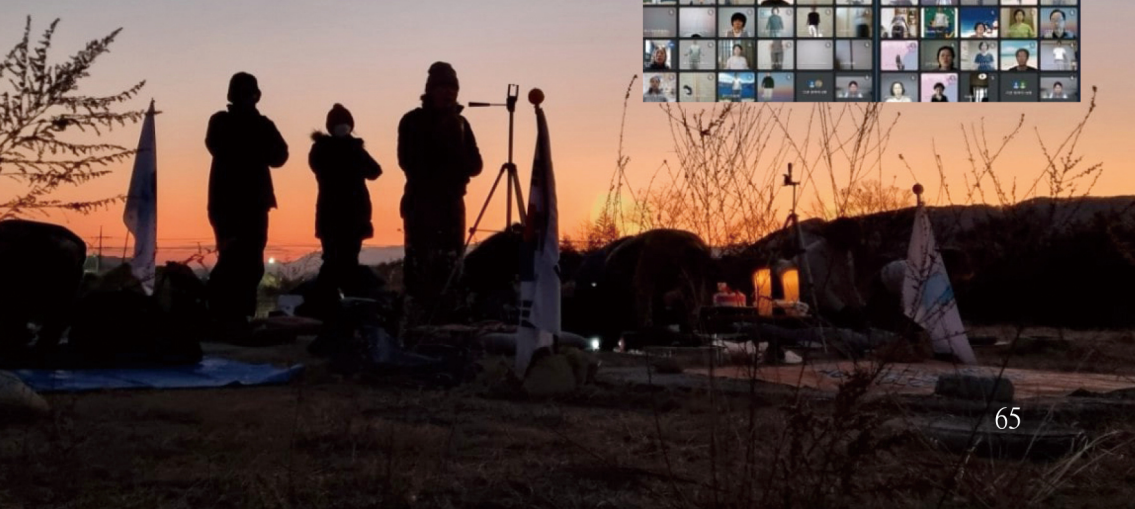


# 사천왕사지 통일기도 새해맞이 천배 정진

김천호 | 부산울산 좋은벗들

- 일시 / 장소 : 2022년 1월 2일 / 경주 사천왕사지 오프모임과 온라인으로 참여
- 참석 : 78명 (사천왕사지 14, 남울산 11, 수영10, 사하 10, 동래 12, 중울산 13, 해운대 7)

어두운 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줄 몰랐다.  
달자리 별자리를 벗삼아  
통일이라는 막연하지만  
절실한 목표를 향해  
밤새워 우리는 없는 길을 그냥 걸었다.  
먼 동이 터오고 아침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알았다.  
통일로 가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보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송복성 송승원 송영규 송전용 송태대 송필순 신강희 신명순 신미란 신봉월 신숙경 신순숙 신순임 신주호 신창원 신현희 신해정  
 심은우 심지현 심진희 심홍아 안도연 안봉진 안상호 안선영 안순희 안재성 안재호 안정애 안정희 양경희 양기환 양연수 양창호  
 양해영 양희준 여경민 여경화 여현주 오덕진 오명옥 오문택 오미옥 오미현 오민정 오병찬 오성일 오세준 오세철 오재민 오정숙  
 오정택 오지민 오진미 오진환 오환석 오채영 우복덕 우서정 우현자 원주빈 원준경 유수스님 유옥경 유우인 유윤식 유은희  
 유재성 유정재 윤상석 윤석환 윤시영 윤여훈 윤영실 윤옥순 윤은희 윤인숙 유재승 윤태순 윤태욱 윤혜숙 윤후영 이갑성 이경숙  
 이경향 이경화 이경희 이광용 이근진 이금림 이기남 이길경 이길자 이덕기 이덕아 이동우 이두희 이두희 이로운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나 이미란 이복순 이봉자 이상간 이상광 이상만 이상열 이상필 이상현 이서현 이선경 이선민 이선호 이성미 이소현  
 이순자 이승용 이시훈 이연순 이영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애 이영의 이영희 이오영 이외순 이원석 이원재 이우철 이은경  
 이은경 이은민 이은실 이응노 이인 이재문 이재숙 이재하 이정민 이정순 이정임 이정희 이종인 이지현 이창한 이창수  
 이창희 이철호 이판오 이향애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원 이화경 이화승 이효산 이희자 임도영 임수신 임소옥 임윤석 임진영  
 임철 임혜진 임희진 장경원 장도연 장미애 장성식 장세만 장영주 장정화 장창호 장효숙 전귀재 전미선 전병찬 전우성 정경숙  
 정경희 정구택 정근혜 정다영 정란희 정래식 정명화 정미숙 정미숙 정보성 정상목 정선경 정선영 정성아 정수희 정순자 정순진  
 정안수 정안숙 정인모 정영미 정영수 정용구 정월향 정유진 정점순 정정관 정정영 정정원 정정희 정하린 정현숙 정형태 정혜윤  
 조경희 조금연 조세분 조수진 조시현박해광 조연정 조영구 조정희 조정희 조해숙 조협 조혜정 조희욱 주동규 주순우 지명자  
 지민규 지상금 지은아 지은정 지현숙 진관자 차영식 채수연 채희주 천성필 최기민 최고는 최광수 최기진 최다루한 최대식  
 최동호 최민서 최병숙 최복희 최상민 최선희 최수지 최영자 최원석 최장희 최정원 최정희 최지원 최진원 최현서 최현숙 하기완  
 하선아 하연숙 하지유 한규매 한대식 한동필 한미경 한병기 한상훈 한승희 한용택 한의규 한지연 한태숙 한혜옥 함정호 허미혜  
 허영숙 허은희 허준 현순희 현정련 현효옥 호수경 홍미경 홍지에 홍진숙 황단오 황인조 황진희 황화숙

## [ 좋은이웃되기 ]

강득록 강문현 강미선 강보길 강희태 고성임 고정준 고현정 곽도순 구영모 구영희 구자걸 구현오 권교중 권지용 금동숙  
 김두희 김현배 김가빈 김경선 김경주 김경현 김국환 김규희 김나형 김남선 김도연 김동윤 김명수 김명연 김미경 김민범  
 김민정 김보현 김봉환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정 김성열 김수진 김수현 김승호 김승환 김영숙 김영자 김원진  
 김윤범 김의경 김의권 김인식 김재민 김재현 김장실 김지희 김춘희 김태희 김필순 김한수 김한영 김향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혜영 김혜정 노경미 노란 노주형 노혜원 노하산 류민경 류시성 류제표 문경자 문보빈 문성해 문예진 문정희 민현주 박경숙  
 박남주 박명복 박선경(법성스님) 박선희 박성원 박세미 박수영 박순우 박순화 박순희 박영덕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환 박재범  
 박준경 박태희 박현남 박현실 박형준 박홍주 방미영 방서연 배미령 배정기 백광순 백동화 변종임 서성희 서양숙 설은자 성혜정  
 송영희 손익련 송미혜 송봉성 송선희 송승원 송태대 신보영 안선영 안소연 양미진 양지연 양홍심 엄지선 오병찬 오성일 오윤주  
 오정택 옹채영 유라미 유남옥 유두진 유정재 윤득기 윤여동 윤정호 이경선 이남은 이다혜 이대규 이동우 이로운 이만영 이명우  
 이미경 이미애 이민영 이방숙 이복순 이봉자 이상한 이상현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서애 이수민 이영 이영희 이원우 이유철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우 이인 이인숙 이일현 이재관 이점순 이정남 이정남 이정민 이정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숙 이종필 이종인  
 이지는 이지현 이창희 이철호 이필영 이향애 이현미 이혜경 이화경 이희자 임미화 임경란 임수신 임소옥 임지영 임진영 임현식  
 임희희 정경애 정말자 정서우 정수빈 장시는 장지만 장희정 전보명 전외자 전우성 전은수 전정숙 전현희 전혜준 전해진 정금도  
 정래식 정문희 정성호 정성희 정순자 정원자 정은영 정지안 정지윤 정충호 정현숙 조경희 조남국 조세분 조순봉 조은서 조재익  
 조주호 조희욱 주혜자 지명자 천윤호 천인근 최경민 최경민 최동숙 최복희 최선미 최성희 최순희 최향남 최영화 최원석  
 최은숙 최인미 최한규 최현미 최현숙 최현이 하연숙 하재남 한건우 한병기 한상순 한승희 한은호 한정원 한지연 함정호 허중보  
 현은영 홍경희 홍순연 홍옥희 홍임표 홍효정 황경석 황수진 황승오 황연주 황지영 limeihua MATSUHASHI SACHIYO

## [ 평화지킴이 ]

강경희 강득록 강문현 강미선 강보길 강복용 강옥선 강은주 강인숙 강정숙 강혜인 고광숙 고정순 광석일 구자걸 권두한 권수경  
 권순범 권순환 권태억 권혜진 금두희 김미숙 김현배 김갑우 김경란 김경률 김경원 김국희 김기성 김기홍 김나경 김나현  
 김남심 김대식 김대익 김덕운 김동식 김동욱 김명숙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기 김민정  
 김민정 김바야살 김보경 김봉환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옥 김선정 김수안 김수영 김수현 김승환 김양숙 김영숙 김영은  
 김원진 김용석 김용표 김은미 김은정 김의권 김인식 김인영 김재민 김재현 김재호 김정길 김정원 김정희 김중배 김중진  
 김중태 김중광 김지영 김창우 김춘화 김판신 김향리 김향숙 김향희 김형규 김형준 김혜정 김효식 김희경 노경미 노란 노현승  
 대산항도선사조성민 류시성 류제표 문보빈 문영일 문예진 문현숙 박경숙 박경옥 박경옥 박남주 박미경 박민주 박병관 박선희  
 박성미 박성수 박성원 박순화 박순희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경 박인숙 박재범 박정임 박정태 박종보 박홍훈 박주경 박준경  
 박태희 박하나 박현남 박현실 박현주 박형준 박혜숙 박홍주 방미경 방미영 방찬희 배미령 배준식 백광순 변애란 서동찬 서석민

## 후원회원

서수정 설은자 성경직 세용 손동석 손상우 손영희 송민선 송병순 송봉섭 송선희 송승원 송은화 송태화 신미경 신미혜 신민경 신상룡 안선영 안순주 안영민 안원봉 안인옥 안재식 양승용 양은희 여인옥 예병우 예상희 예찬순 오병찬 오성일 오세풍 오윤주 오은경 오정택 오진환 오훈철 용재명 우순점 우영욱 유나경 유정재 유현복 유현정 유명선 유정호 윤희숙 이경수 이경철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동건 이동우 이두희 이로운 이미경 이민영 이봉자 이상건 이상필 이상현 이새름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수경 이숙형 이순길 이순모 이영희 이오영 이유진 이유철 이윤정 이은경 이은노 이인 이일현 이재관 이재호 이점순 이정민 이정민 이정숙 이정순 이정원 이정희 이준석 이종민 이지는 이지현 이진영 이창희 이철호 이태희 이필영 이향애 이혜경 이혜림 이혜영 이화경 이희자 임수신 임지영 임진영 임재남 임현식 장말자 장미 장서우 장수빈 장용창 장희정 전병철 전부연 전성일 전영은 전우성 전지호 전형지 정경순 정귀임 정금도 정도현 정래식 정문희 정영숙 정은영 정태임 정현숙 정희숙 조경희 조세분 조수월 조수진 조유진 조은미 조정미 조정민 조희옥 주문돈 주혜숙 지명자 지서윤 지현우 채귀훈 채지영 천승영 최경민 최교은 최복희 최선미 최수화 최순환 최영선 최영화 최원석 최인규 최정희 최현숙 최현자 최함식 추상욱 하연숙 한병기 한서연 한승희 한용탁 한정수 한종업 한지연 한지혜 함정호 허중보 허준 현은영 현재근 현희연 홍상수 홍진숙 황경석 황광철 황미경 황복현 황순옥 황유진 MATSUHASHI SACHIYO

## 12월 후원입니다.

### [ 뉴스레터 후원 ]

김승환 김현희 도윤주 류재표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민 이지는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 [ 일반후원회원 ]

감사합니다\_0 (주)북로그컴퍼니 강득록 강미정 강보희 강성연 강신준 강용순 강유진 강재성 강태경 강호일 강희석 강희선 건축사사무소석원 고희경 고관규 고광숙 고미숙 고병영 고연화 고은별 고정순 고지선 고지안 곽도순 곽봉준 구미경 구언연 구자걸 권미향 권윤정 권이슬 권재영 권태운 권호기 권호순 금두희 기모란 기세환 길미숙 길현자 김경란 김경분 김경실 김경애 김경은 김경필 김경희 김경희 김귀남 김규혁 김근식 김금숙 김기연 김나경 김남홍 김대순 김대철 김도영 김도형 김동환 김리연 김민 김명희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중 김백수 김병주 김봉환 김상원 김석범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정 김선희 김성미 김성유 김성진 김성혜 김세일 김세호 김수녀 김수암 김숙녀 김순영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양지 김영실 김영은 김영주 김용철 김원달 김원태 김월금 김유연 김은경 김은란 김은수 김은자 김은희 김익권 김인식 김인희 김재규 김재민 김재영 김재현 김재호 김재훈 김정숙 김정숙 김정옥 김정윤 김정임 김종복 김종순 김중호 김중희 김주옥 김주환 김지영 김지은 김진권 김진민 김찬우 김창민 김창수 김창진 김하정 김학련 김향 김향숙 김혁 김현숙 김현우 김현지 김현지 김형국 김형숙 김형의 김형희 김홍희 김화숙 김화영 김희경 김희준 남미희 남연우 노경미 노기선 노란 노옥재 노은하 노주형 노지희 드림앤안양지점 디엠플러스마린컨설팅주식회사 류석현 류시성 류제표 문귀숙 문보민 문예진 문은영 문지영 문태운 민영희 민춘희 박경석 박경숙 박경훈 박경희 박근영 박근욱 박대식 박동주 박민경 박민식 박민정 박병진 박봉진 박분숙 박상미 박상호 박선희 박선희 박성원 박성준 박수미 박수일 박순옥 박순천 박순희 박승우 박승호 박애란 박병주 박윤호 박은아 박인경 박재현 박정수 박정애 박정옥 박주영 박주영 박주하 박준경 박진현 박진희 박철웅 박태희 박현님 박현숙 박희준 박혜숙 박홍남 박홍주 박희복 박서연 배명자 배미령 배상훈 배선희 배준식 백강순 백단식 백영일 백옥대 백혜은 변류스님 변명규 서석민 서영란 서영훈 서예람 서주연 서창무 석선정 석희길 설민영 설정경 성광자 성향아 소희주 손경연 손규만 손대성 손영상 손영희 손은숙 손재선 손정숙 송기형 송민령 송민석 송봉섭 송승원 송영규 송준경 송태화 송필순 신강희 신명순 신미란 신봉철 신숙경 신순수 신순임 신주호 신창연 신현희 신혜정 심은우 심지현 심진희 심향아 안도연 안봉진 안상호 안성환 안순희 안재성 안재호 안정애 안정희 양경희 양기환 양연수 양창호 양혜영 양희준 여경민 여경희 여현주 오덕진 오명옥 오문택 오미옥 오미현 오민정 오병찬 오성일 오세준 오세철 오재민 오정숙 오정택 오지민 오진미 오진환 오환석 용재명 우복덕 우서정 우현자 원주진 원준경 유우스님 유옥경 유우인 유윤식 유은희 유재성 유정재 윤상석 윤석환 윤여운 윤영실 윤옥순 윤은희 윤인숙 윤재숙 윤태욱 윤혜숙 윤후영 이갑성 이경선 이경숙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광용 이근진 이금림 이기남 이길업 이길자 이덕기 이덕아 이동우 이두희 이두희 이로운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나 이미란 이복순 이봉자 이상건 이상광 이상만 이상열 이상필 이상현 이서현 이선민 이선호 이성미 이소현 이수현 이순자 이송용 이시훈 이연순 이영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영희 이오영 이외순 이원석 이원제 이유철 이은경 이은민 이은설 이은호 이인 이재문 이재숙 이정민 이정순 이정임 이정희 이종민 이지는 이지현 이침한 이침한 이창수 이창희 이철호 이편오 이향애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원 이화경 이화승 이효산 이희자 임도영 임미소 임수신 임순옥 임윤숙 임진영 임철 임혜진 임희진 장경원 장도연 장미애

장성심 장세만 장영주 장정화 장창호 장효숙 전기재 전미선 전병찬 전우성 정경숙 정경희 정구락 정근태 정다영 정동희 정란희 정래식 정명화 정미숙 정미숙 정보성 정상목 정선경 정선영 정성아 정수희 정순자 정순진 정승연 정안수 정안숙 정인모 정영미 정영수 정용구 정월향 정유진 정점삼 정정관 정정영 정정원 정정희 정하린 정현호 정현태 정혜윤 조경희 조금연 조세분 조수진 조시현박해광 조연정 조영구 조오연 조정희 조정희 조해숙 조합 조합 조혜정 조희옥 주동주 주선우 지명자 지민규 지상금 지은아 지은정 지현숙 진광자 차영석 채수연 채영운 채희주 천성필 최경민 최고은 최광수 최기진 최다루한 최대식 최동호 최민서 최병숙 최복희 최상민 최선희 최수지 최영자 최은성 최원석 최창희 최정연 최정희 최지원 최진현 최현서 최현숙 하기완 하선아 하연숙 하지유 한규매 한대식 한동필 한미경 한병기 한상훈 한승희 한용탁 한의규 한지연 한태순 한혜옥 함정호 허미혜 허영숙 허은희 허준 허지연 현순희 현정원 현효용 호수경 홍미경 홍지애 홍진숙 황은단 황인조 황진희 황화숙

## [ 좋은이웃되기 ]

강득록 강문헌 강미선 강보길 강희배 고성임 고정순 고현정 곽도순 구영모 구영희 구자걸 구현우 권교중 권지용 금동숙 금두희 길현배 길현자 김가빈 김경선 김경주 김경현 김국환 김규희 김나형 김남선 김도연 김동윤 김명수 김명선 김문영 김미경 김민범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봉환 김분주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정 김성미 김성영 김수진 김수현 김순정 김승호 김승환 김영숙 김영자 김완진 김윤범 김의경 김익권 김인식 김재민 김재현 김정실 김지훈 김준희 김태희 김필선 김한수 김한영 김향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혜영 김혜정 노경미 노란 노주형 노혜원 노희산 류민경 류시성 류제표 문경자 문보빈 문성혜 문예진 문정희 민춘희 민현주 박경숙 박남주 박명복 박선경(법성스님) 박선희 박성원 박세미 박수영 박순우 박순화 박순희 박영대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환 박재범 박준경 박태희 박현님 박현실 박형준 박혜숙 박흥주 방미영 방서연 배미령 배정기 백강순 백동화 변종임 서석희 서양숙 설은자 성혜정 손영희 손익련 송미해 송미해 송봉섭 송선희 송승원 송태화 신보영 안선영 안소연 양미진 양민아 양지연 양홍식 엄지선 오병찬 오성일 오윤주 오정택 옥채명 위라미 유남욱 유두진 유정재 유득기 윤여동 윤정호 이경선 이남운 이다혜 이도규 이동우 이로운 이만영 이명우 이미경 이미애 이민영 이방삼 이복순 이봉자 이상한 이상현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성애 이수민 이영 이외숙 이원우 이유철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우 이인 이인숙 이일현 이재관 이점순 이정남 이정남 이정민 이정순 이정원 이정은 이종필 이종민 이지은 이지현 이창희 이철호 이필영 이향애 이현미 이혜경 이화경 이희자 인미화 임경란 임경희 임경희 임수신 임은숙 임지영 임진영 임현식 임희경 장말자 장서우 장수빈 장시은 장지만 장희정 전보명 전외자 전우성 전은수 전정숙 전형지 전해준 전해진 정금도 정래식 정문희 정성호 정성희 정순자 정원자 정은영 정지안 정지윤 정창호 정현숙 조경희 조남규 조세분 조순봉 조은서 조재희 조주호 조희옥 주혜숙 지명자 천인근 최경민 최경미 최금자 최동숙 최복희 최선미 최성희 최순희 최양남 최영화 최원석 최은성 최인미 최한구 최현미 최현숙 최현이 하연숙 하재남 한근우 한병기 한상순 한승희 한운호 한정순 한정현 한지연 함정호 허준보 허지연 현은영 홍희경 홍순연 홍옥희 홍효정 황경석 황수진 황원주 황지영 limeihua MATSUHASHI SACHIYO

## [ 평화지킴이 ]

강경희 강득록 강문헌 강미선 강보길 강복용 강옥선 강은주 강인숙 강정숙 강혜인 고광숙 고정순 광석일 구미선 구자걸 권두한 권수경 권순봉 권순환 권태억 권현제 금두희 길미숙 길현배 길현자 김갑우 김경란 김경률 김국희 김기성 김기홍 김나경 김나현 김남심 김대식 김대익 김덕운 김동식 김동욱 김명숙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반아슬 김보경 김봉환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옥 김선정 김성미 김수안 김수영 김수현 김승환 김양숙 김영숙 김영은 김원진 김용석 김용표 김은미 김은정 김익권 김인식 김인영 김재민 김재현 김재호 김정길 김정원 김정철 김중애 김중진 김중태 김중광 김지영 김창우 김춘화 김판선 김향희 김형규 김형준 김형준 김혜정 김효삼 김희경 노경미 노란 노현승 대신항도사조성민 류시성 류제표 문보빈 문영일 문예진 문현숙 민춘희 민춘희 박경옥 박경주 박미경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박선희 박성미 박성수 박성원 박순화 박순희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경 박인숙 박재범 박정민 박정대 박종보 박종훈 박주경 박준경 박태희 박하나 박현님 박현실 박현주 박형준 박혜숙 박흥주 방미경 방미영 방찬희 배미령 배준식 백강순 변애란 서동찬 서석민 서수정 설은자 성경직 세용 송동서 송수우 손영희 송민선 송병순 송봉섭 송선희 송승원 송은화 송태화 신미경 신미혜 신민경 신상룡 안선영 안순주 안영민 안원봉 안인옥 안재성 양승용 양은희 여인옥 예병우 예상희 예찬순 오병찬 오성일 오세풍 오윤주 오은경 오정택 오진환 오훈철 옥채명 우순점 우영옥 유나경 유시훈 유정재 유창원 유현복 유현정 윤명선 윤정호 윤호숙 이경수 이경철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도근 이동우 이두희 이로운 이미경 이민영 이봉자 이상근 이상필 이상현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수경 이숙형 이순길 이순모 이영희 이오영 이유진 이유철 이윤정 이은경 이은노 이인 이일현 이재관 이재호 이점순 이정민 이정민 이정숙 이정순 이정원 이정희 이준석 이종민 이지은 이지현 이진영 이창희 이철호 이태희 이필영 이향애 이혜경 이혜림 이혜영 이희경 이희자 임수신 임지영 임진영 임채남 임현식 장말자 장미 장서우 장수빈 장용창 장희정 전병철 전부연 전성일 전영은 전우성 전지호 전형지 정경순 정귀란 정금도 정도현 정래식 정문희 정영숙 정은영 정태임 정현숙 정희숙 조경희 조세분 조수월 조수진 조유진 조은미 조정미 조정민 조희옥 주문돈 주혜숙 지명자 지서윤 지현우 채귀환 채지영 천승영

## 후원회원

최경민 최고은 최복희 최선미 최수화 최순환 최영선 최영화 최원석 최인규 최정희 최현숙 최희찬 최화심 추순옥 하연숙 한병기 한서연 한승희 한용탁 한정수 한종업 한지연 한지혜 함정호 허중보 허준 허지연 현은영 현재근 현희련 홍상수 홍진숙 황경석 황광철 황미경 황복현 황순옥 황유진 MATSUHASHI SACHIYO

## 2022년 1월 후원입니다.

### [ 뉴스레터 후원 ]

김승환 김현희 도윤주 류재표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인 이지은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 [ 일반후원회원 ]

감사합니다\_(0)\_ 강득록 강미정 강보길 강성연 강신준 강용순 강유진 강재성 강태경 강현기 강호일 강희석 강희선 건축사사무소석원 고경옥 고관규 고광숙 고미숙 고병엽 고연화 고은별 고정선 고지선 고지안 곽도순 곽봉준 곽해님 구미경 구언연 구자걸 권미향 권원숙 권윤정 권이슬 권재영 권태운 권호기 권효순 금두희 기모란 기세환 길미숙 길현자 김경란 김경분 김경실 김기에 김경주 김경필 김경희 김경희 김귀남 김규혁 김근식 김금숙 김기연 김나주 김남홍 김대순 김대철 김도영 김도형 김동환 김민연 김만 김명희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백수 김백수 김보환 김상환 김석범 김석순 김선경 김선주 김선정 김선희 김성우 김성진 김성혜 김세일 김세호 김수녀 김수훈 김숙녀 김순영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양자 김영실 김영은 김영주 김용철 김원달 김원태 김월금 김유연 김은경 김은란 김은수 김은자 김은희 김익권 김인식 김인희 김재규 김재민 김재영 김재호 김재훈 김정숙 김정옥 김정옥 김정윤 김중복 김중순 김중호 김중희 김주옥 김지영 김지은 김진권 김진민 김찬우 김창민 김창수 김창진 김하정 김학련 김향 김향숙 김혁 김현숙 김현우 김현지 김현지 김형국 김형숙 김형익 김형희 김홍희 김화숙 김희경 김희준 남연우 노경미 노기선 노란 노옥재 노은하 노주형 노지희 드림앤인양지점 류두진 류석현 류시성 류재표 문귀숙 문보빈 문예진 문은영 문지영 문태운 민영희 민춘희 박경석 박경숙 박경이 박경훈 박경희 박근영 박금주 박동주 박민경 박민식 박민정 박병진 박봉진 박분숙 박상희 박상호 박선희 박선희 박성원 박성준 박수미 박수일 박순옥 박순천 박순희 박승우 박승호 박애란 박영주 박윤호 박은아 박인경 박재현 박정수 박정옥 박주영 박주하 박주경 박진현 박진희 박철웅 박태희 박현님 박현숙 박현호 박형준 박혜숙 박홍남 박홍주 박희복 방서연 배명자 배미경 배상훈 배선희 배준식 백간순 백단심 백영일 백용대 백혜은 법륜스님 서석민 서영란 서영홍 서예랑 서주연 서창무 석선정 석은영 설민영 설정경 성광지 성향아 소희주 손경연 손규만 손대성 손영미 손영성 손영희 손은숙 손재선 손정숙 송기형 송민령 송민석 송봉식 송승원 송영규 송준용 송지우 송태화 송필순 신강희 신명순 신미란 신봉일 신숙경 신순옥 신순임 신주호 신창연 신현희 신혜정 심연우 심지현 심진희 심홍아 안도연 안봉진 안상호 안선영 안소희 안재성 안재호 안정애 안정희 양경희 양기환 양연수 양혜영 양희준 여경민 여경화 여현주 오덕진 오명옥 오문택 오미옥 오미현 오민정 오병찬 오성일 오세철 오재민 오정숙 오정택 오지인 오진미 오진환 오환석 우채명 우복덕 우서정 우현자 원준경 유수님 유옥경 유우인 유은희 유재성 유정재 윤남희 윤상석 윤석환 윤여훈 윤영실 윤옥순 윤은희 윤인숙 윤재송 윤태운 윤태옥 윤혜숙 윤유영 이갑성 이경선 이경숙 이경향 이경화 이경희 이광용 이근진 이금림 이기남 이길업 이길자 이덕기 이덕아 이동우 이두희 이두희 이로운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나 이미란 이복순 이봉자 이상근 이상광 이상만 이상열 이상필 이상현 이상현 이서현 이선경 이선민 이선호 이상미 이소현 이수자 이승은 이시훈 이연순 이영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영희 이요소 이원석 이원재 이우철 이은경 이은경 이은실 이은노 이인 이재문 이재숙 이정민 이정순 이정민 이정희 이정희 이종민 이지은 이지현 이진미 이창한 이창수 이창희 이철호 이판오 이향애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원 이화경 이화순 이효산 이희자 임도영 임미순 임수신 임순옥 임윤석 임진영 임철 임해진 임희진 장경원 장도연 장미애 장성심 장세만 장영주 장정화 장창호 장호숙 전귀재 전미선 전병찬 전우성 정경숙 정경희 정규광 정근혜 정다영 정란희 정래식 정명화 정미숙 정미숙 정보성 정선경 정선영 정성아 정성희 정순자 정순진 정승연 정승연 정안수 정안숙 정연모 정영미 정영수 정용구 정월향 정유진 정이우 정재이 정점순 정정관 정정영 정정희 정진호 정태임 정현숙 정현태 정해윤 조경희 조세분 조수진 조시현박해광 조영정 조영구 조정희 조정희 조해숙 조해정 조혜정 조희옥 주동규 주선우 지명자 지민규 지상금 지은아 지은정 지현숙 진광자 차영석 채수연 채영은 채희주 찬성필 최경민 최고은 최광수 최기진 최다루한 최대식 최동호 최민서 최병숙 최복희 최상민 최선희 최수지 최영자 최웅선 최원석 최장희 최정연 최정희 최지원 최진연 최희선 최현숙 허기환 하선아 하연숙 하지유 한규매 현대식 한동필 한미경 한병기 한상훈 한승희 한승희 한영옥 한익규 한지연 한태숙 한혜옥 함정호 허미혜 허영숙 허은희 허준 허지연 현수희 현정연 현효용 호수경 홍미경 홍지혜 홍진숙 황은단 황인희 황진희 황화숙 후원금

## [ 좋은이웃되기 ]

강득록 강문현 강미선 강보길 강희배 고성임 고정순 고현정 곽도순 구영모 구영희 구자걸 구현오 권교중 권지웅 금동숙 금두희 길현재 길현자 김가빈 김경선 김경주 김경현 김국환 김규희 김나형 김남선 김도연 김동윤 김명수 김명신 김문영 김미경 김민범 김민정 김민경 김봉환 김분주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정 김성열 김수진 김수현 김순정 김승호 김승환 김영숙 김영자 김민진 김윤범 김익정 김익권 김인식 김재민 김정실 김지훈 김준희 김태욱 김태희 김필선 김한수 김현영 김향숙 김현정 김현진 김현지 김혜영 김혜정 노경미 노란 노주형 노혜원 노희산 류민경 류시성 류제표 문경자 문보빈 문성해 문예진 문정희 민춘희 박경숙 박명복 박선경(법성스님) 박선희 박성원 박세미 박수영 박순우 박순화 박순희 박영덕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환 박재범 박정숙 박준경 박태희 박현님 박현실 박형준 박혜숙 박홍주 방미영 방서연 배미령 배정기 백강순 백동화 변종임 서성희 서양숙 설은자 성해정 손영미 손영희 손익련 송미해 송봉섭 송선희 송승원 송지우 송태화 신보영 안선영 안소연 양미진 양지연 엄지선 오병찬 오성일 오윤주 오정택 옹채명 위라미 유남욱 유두진 유정재 윤득기 윤여동 윤정호 이경선 이남운 이다혜 이동규 이동우 이로운 이만영 이명우 이미경 이미애 이미영 이민영 이방숙 이복순 이봉자 이상현 이상헌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성애 이수민 이영 이외숙 이원우 이유철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우 이인 이인숙 이일현 이재관 이재준 이정남 이정남 이정민 이정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숙 이종필 이종인 이지은 이지현 이창희 이철호 이필영 이향애 이현미 이혜경 이화경 이희자 인미화 임경란 임영희 임수신 임은숙 임지영 임진영 임현식 임희경 장말자 장서우 장수빈 장시은 장지만 장희정 장희정 전보화 전외자 전우성 전은수 전정숙 전형지 전해준 전해진 정금도 정래식 정문희 정성호 정성희 정순자 정승연 정원자 정은영 정지만 정지윤 정중호 정현숙 조경희 조남국 조세분 조은서 조재익 조주호 조희국 주혜숙 지명자 천인근 최경민 최경미 최금자 최동숙 최복희 최선미 최성희 최순희 최양남 최영화 최원석 최은숙 최인미 최환구 최현미 최현숙 최현이 추항자 하연숙 하재남 한건우 한병기 한성윤 한승희 한승희 한은호 한정수 한정현 한지연 함정호 허준보 허지연 현은영 홍경희 홍순연 홍옥희 홍효정 황경서 황수진 황승오 황연주 황지영 limeihua MATSUHASHI SACHIYO

## [ 평화지킴이 ]

강경희 강득록 강문현 강미선 강보길 강복용 강옥선 강은주 강인숙 강정숙 강혜인 고광숙 고정순 객성일 구자걸 권두환 권수경 권순봉 권순환 권태억 권현재 금두희 길미숙 길현재 길현자 김갑우 김경란 김경를 김국희 김기성 김기홍 김나경 김나현 김남심 김대식 김대익 김덕윤 김동식 김동욱 김명숙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기 김민정 김민정 김반야슬 김보경 김봉환 김석순 김선경 김선문 김선순 김선정 김수안 김수영 김수현 김승환 김양숙 김영숙 김영은 김원진 김용석 김용표 김은미 김은정 김익권 김인식 김인영 김재민 김재호 김정길 김정원 김정철 김중애 김중진 김중태 김중광 김지영 김창우 김춘화 김판선 김향숙 김향희 김형규 김형준 김혜정 김효심 김희경 노경미 노란 대산향도선사조성민 류시성 류제표 문보빈 문예진 문현숙 문현숙 민춘희 박경숙 박경옥 박경욱 박미경 박민주 박봉관 박선희 박성미 박성수 박성원 박순화 박순희 박영아 박윤정 박은아 박인환 박인숙 박재범 박정임 박정태 박종보 박종훈 박주경 박준경 박태희 박하나 박현민 박현실 박현주 박형준 박혜숙 박홍주 방미경 방미영 방찬희 배미령 배준식 백강순 변애란 서동찬 서석민 서수정 설은자 성경직 세용 손동석 손상우 손영미 손영희 송민선 송병수 송봉섭 송선희 송승원 송은화 송지우 송태화 신금년 신미경 신미혜 신민경 신상룡 안선영 안소주 안영민 안원봉 안인옥 안재식 양승용 양은희 여인옥 예병우 예상희 예진순 오병찬 오성일 오윤주 오은경 오정택 오진환 오훈철 옹채명 우순점 우영옥 유나경 유시훈 유정재 유창원 유현복 유현정 윤명선 윤정호 윤호숙 이경수 이경철 이경희 이경희 이동건 이동우 이두희 이로운 이미경 이민영 이봉자 이상건 이상필 이상헌 이새롬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수경 이수형 이수길 이수도 이영희 이오영 이유진 이유철 이윤정 이은경 이은노 이인 이일현 이재관 이재호 이점순 이정민 이정민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원 이정희 이준석 이종인 이지은 이지현 이진영 이창희 이철호 이태희 이필영 이향애 이혜경 이혜림 이혜영 이화경 이희자 임수신 임지영 임진영 임채남 임현식 장말자 장미 장서우 장수빈 장용창 장희정 장희정 전병철 전부연 전성일 전영은 전우성 전지호 전형지 정경순 정금도 정도현 정래식 정문희 정승연 정영숙 정은영 정현숙 정희숙 조경희 조세분 조수월 조수진 조유진 조은미 조정미 조정민 조희국 주문돈 주혜숙 지명자 지현우 채귀훈 채지영 천승영 최경민 최고은 최복희 최선미 최수숙 최순환 최영화 최원석 최인규 최준희 최현숙 최원자 추순옥 추항자 하연숙 한병기 한서연 한승희 한승희 한용탁 한정수 한종순 한지연 한지혜 함정호 허준보 허지연 현은영 현재근 현희연 홍상수 홍진숙 황경서 황광철 황미경 황순옥 황유진 MATSUHASHI SACHIYO



# (사)좋은벗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좋은벗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세상에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세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롭고 갈등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 후원회비는 이렇게 내세요

-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S를 이용하면 자동이체처럼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A 신청은 좋은벗들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후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뒷면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좋은벗들에 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세요.
-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사단법인 좋은벗들]
  - 국민은행 086-25-0021-251      • 농협 100080-51-038056
-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TEL. 02-587-8996 / FAX. 02-581-4077(좋은벗들)

## (사)좋은벗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필수입력 항목 표시입니다.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주민등록번호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기재해 주세요)	
*주소 (우)	소식지 구독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신함 <input type="checkbox"/> 수신 안함
이메일	*전화 ☎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일시불 / 원	
*후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좋은이웃되기 <input type="checkbox"/> 평화지킴이	
본인은 좋은벗들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후원금이 좋은벗들의 일체의 목적사업이나 운영비로 쓰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CMS자동이체 (좋은벗들에 자동이체 위임)	
*CMS자동이체 동의서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약정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좋은벗들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출금은행	*출금계좌
*예금주	*예금주 서명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예금주 핸드폰번호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출금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 된 경우, 다음 출금일에 한해 재출금됩니다.)	
위와 같이 후원금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좋은벗들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좋은벗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후원회원께서는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회원가입 및 관리, 기부금영수증발급, 후원금 수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동의일 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동의일 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주)나이스페이 (주)휴먼소프트웨어 (주)오스메일 국세청	CMS 출금이체 승인 및 정산, 후원금 결제, 회원관리, 온라인서비스,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후원금 결제정보 보관(5년, 후원 중단시부탁)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좋은벗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좋은벗들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약정한 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좋은벗들과 협의하여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좋은벗들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문의(후원회원 담당자) 전화 02-587-8896, FAX 02-581-4077, 메일 cr@gf.or.kr

좋은벗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벗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돈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  
마음 속의 사랑을 선물로 드립니다.